대구신문

2006년 08월 29일 005면

"지역 현안사업 국비반영률 높이겠다"

이강철 靑 정무특보

이강철 청와대 정무특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"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대구경북의 현안사업 국비반영률을 5% 이상 높이겠다"고 밝혔다.

이 특보는 "지난 7월18일 대구시장, 경북도지사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된 주요현안사업과 국비지원예산을 검토한 결과 나름대로 순위를 정했으며, 우선순위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국비지원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"고 다짐했다.

이 특보는 대구의 경우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, 대구과학관건립지원 등 현안사업 유치 노력과 함께 달성2차단지 진입로, 성서과학연구단지 육성지원, 지하철3호선 건설 등에서 국비지원액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발했다. 경북의 경우는 상주-안동-영덕을 잇는 동서6축 고속도로, 김천-현풍간 고속도로, 포항-울진간 국도확장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증액을 추진한다고 발했다.

이 특보는 이들 사업 중 국비지원사업만 목표대로 반영될 경우, 대구시는 부처반영비율이 73%에서 78%로, 경북도는 40.7%에서 45%로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.

김상섭기자 kss@idaegu.co.kr